

2015년 7월 일본의 표고버섯 해외시장 동향 및 전망

□ 임산물 수입동향

(단위 : 백만엔, %)

구 분	'15 5월 당월		'15 1~5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금액	전년동기 대비
농림축수산물	794,000	△3.6	3,929,819	4.6
임 산 물	105,660	△8.4	524,576	△5.3

자료 : 일본 농림수산물성 통계

□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 : 백만엔, %)

품목	'14.1~5	'15.1~5	증감%	1위		2위		3위		한국산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금액
표고버섯 (생표고)	505	419	-17.1	중국	419	-	-	-	-	-
표고버섯 (건표고)	3,414	3,209	-6.0	중국	3,209	홍콩	0.49	-	-	-

자료 : 일본 농림수산물성 통계

□ 생산 및 가격 동향

○ 작황

- 일본의 표고버섯 생산량은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2012년의 생표고의 대폭적인 감소는 2011년의 동일본대진재 이후에 주 생산지인 후쿠시마현, 이바라기현, 토치가현의 생산량 감소가 요인임.
- 생표고의 생산량은 토쿠시마현 8,541톤, 홋카이도가 8,149톤, 이와테현 5,032톤, 군마현 3,610톤이며, 주 생산지인 동북·관동 지방은 생산량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음.

- 건 표고버섯의 생산량은 오이타현 1,599톤, 미야자키현 615톤, 에히메현 266톤, 쿠마모토현 255톤이며, 주 생산지인 큐슈 지방은 생산량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음.
- 표고버섯의 생산 방법은 원목 재배가 많았으나, 2000년대부터 균상 재배가 증가하여 현재 균상 재배가 전체 생산 방법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표고버섯 생산동향>

연도	구분	생산량 (톤)	출하량 (톤)	생산자수 (개소)
2010	생표고	77,079	76,546	14,593
	건표고	3,516	3,391	13,936
2011	생표고	71,253	70,623	14,036
	건표고	3,695	3,623	13,801
2012	생표고	66,476	65,642	12,631
	건표고	3,705	3,600	13,342
2013	생표고	67,946	66,947	11,896
	건표고	3,498	3,459	12,694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

○ 도매가격

- 생 표고버섯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매년 도매물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의 도매물량은 2010년 대비 약 21% 감소함.
- 2015년 5월의 생 표고버섯의 도매가격은 897엔/kg 이며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하고 있으나, 도매물량은 10% 감소하고 있음. 수입 생 표고버섯의 도매가격은 625엔/kg 이며, 전년 대비 12% 증가하고 있음. 2015년 4월 이후 수입 생 표고버섯은 도매물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엔저 등의 영향으로 도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2015년의 건 표고버섯의 각 지역의 입찰가격은 오이타현은 4,334엔/kg, 미야자키현은 4,068엔/kg, 에히메현은 5,013엔/kg 이며, 2011년의 동일본대진재 이후 약 4년만에 4,000엔을 웃도는 증가를 보이고 있음.

<전국 주요 도매시장 생 표고버섯의 도매 물량 및 가격>

(단위 : 톤, 엔/kg)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물량	가격	물량	가격	물량	가격	물량	가격	물량	가격
	62,708	833	58,851	827	56,725	819	53,122	857	50,514	913

자료 : 일본 농림수산물 통계

○ 소매가격

- 일본 농림수산물성의 '신선야채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월의 생 표고버섯의 일본산 소매가격은 2,188엔/kg 이며, 전년 대비 4% 상승하고 있음. 수입산의 소매가격은 964엔/kg 이며, 전년 대비 약 1.2% 상승하고 있음.

□ 소비 동향

○ 자국 생산

- 2011년의 동일본대진재 이후 방사능 피해 등의 요인으로 표고버섯의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음. 생 표고버섯의 경우, 2015년 5월의 도매시장 거래물량이 2014년 5월에 비해 감소하고 있음으로 지속적으로 소비량도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011년의 동일본대진재 영향으로 생산을 하지 못했던 주 원산지인 동일본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표고버섯의 생산 및 출하를 시작하여 소비확대를 위한 각종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음.

○ 대외 수입

- 표고버섯의 주 수입국인 중국의 식품 안정성 문제로 중국산을 기피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수입산 전체의 소비도 감소하고 있음. 건 표고버섯의 경우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서의 수입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시장 경쟁 상황

○ 현지시장 유통 경쟁 실태

- 2015년 1월의 생 표고버섯의 일본산 소매가격은 2,188엔/kg , 수입산의 소매가격은 964엔/kg 이며, 수입산은 일본산의 약 44%의 가격임. 저가격인 수입산 생 표고버섯은 업무용에 많이 쓰이고 있음.
- 가을에 제철인 송이버섯의 생산 환경의 악화와 활엽수의 활용 대책으로 후쿠이현에서는 대체 품종의 인공 생산의 검토가 활발하여 표고버섯의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에 송이버섯에 더불어 경쟁 품목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산의 경우, 저가격인 중국산에 가격 경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우며, 수입 물량으로는 전체물량의 10%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 유통매장에서 가정용으로 판매되어 있는 상품 중에서 한국산은 흔히 볼 수 없음.

□ 향후 시장 전망

○ 이슈현안

- 인구 감소와 소비량 감소의 대책으로 큐슈지역에서는 근접한 대만으로 활발하게 수출을 하고 있으나 최근 대만에서는 일본에서의 수입 규제(일본내 생산지 증명 등)를 전면 강화하여, 향후 건 표고버섯의 수출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 표고버섯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산 원목재배의 건 표고버섯을 추진하는 협회(전국 건면 협동 조합 연합회와 공동 개최)에서는 7월 7일에 도쿄의 긴자에서 쿠마모토산과 오이타산의 건 표고버섯, 메밀국수 등의 무료 샘플을 배포하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큰 인기를 얻었음. 최근 일본내 수요를 높이기 위해 대도시에서는 각종 홍보 이벤트가 활발하게 개최되어 있음.



2015년 7월7일 건표고버섯의 날 행사

○ 수입 전망

- 중국산의 식품 안정성 문제로 일본산으로 대체하는 경향과 주 산지인 동일본 지역의 생산의 본격화로 현재와 같이 수입산 표고버섯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산 표고버섯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후 영향으로 현재보다 생산량이 대폭 감소 시기에는 수입산의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음.

○ 시사점(한국산의 현지시장접근 방안)

- 현재 수입산의 표고버섯은 대부분이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화가 필요함. 일본 식품 시장 수요에 맞는 간편 또는 조리시간이 짧은 레시피 등을 개발하여 표고버섯의 활용도를 강조한 홍보를 추진할 방안도 있음.